

악귀 물리치고 요정과 꿈같은 사랑... 무사의 '백일몽'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17> 제즈티르나크, 페리
그리고 마마이



카자흐스탄 알타이 산맥에 있는 콜사이 호수. 해발 1700m에 달하는 계곡에 있으며, 그 주변이 아름다운 침엽수와 바위에 둘러싸여 '카자흐스탄의 알프스'로 불린다.

/카자흐스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카자흐스탄 = 윤영기 기자

'제즈티르나크, 페리 그리고 마마이'는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신화적 민담이다. 무사 마마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악령 제즈티르나크(일명 강철손톱)와 그의 남편을 죽인다는 내용이 열개다. 마마이와 페리(요정)와의 이루어지 못한 꿈 같은 사랑도 그려진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죽인 악령 소탕한 무용담
잠 이기지 못해 놓친 천사와의 안타까운 사랑
두가지 일화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에 '일침'

'제즈티르나크...'는 주인공 마마이가 화자(話者)로 등장.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두 개의 일화를 여행객들에게 들려주는 유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여느 민담과 뚜렷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름 모를 화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무사의 무용담이나, 전설을 들려주는 여느 이야기 전개방식과도 차별된다. 마마이는 자신의 마을로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무사할을 찾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마마이는 그곳에서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고기를 굽던 도중 '강철손톱'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즈티르나크와 조우한다. 그녀는 아름답고 젊지만 강철 코와 손톱을 지닌 악령이다. 카자흐스탄 신화에서는 엄청난 비

명을 질러 새와 작은 동물을 기절시킨 뒤 잡아먹는 악귀로 묘사된다. 마마이가 건넌 고기를 살뜰히 물론 뼈까지 삼켜버린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종적을 감춘다. 괴기스런 여인의 표정과 몸짓에서 수상한 감새를 눈치챈 마마이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숲에서 잠든 것으로 위장한다. 제즈티르나크는 마마이의 계략에 빠져 허수아비를 공격하다 마마이가 쓴 화살을 맞고 달아나버린다. 추격에 나선 마마이는 하얀 도끼로 그녀의 숨통을 끊고 잘라낸 두 팔을 가지고 마을로 귀환한다. 그러나 마을의 현자는 크게 우려한다. "그 도끼는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다. 제즈티르나크는 남편이 있어, 네가 부인을 죽였으니 남편이 우리마을 사람들을 도륙하게 될 것이야. 네가 가져온 하얀 도끼로 그를 단 한번에 죽여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매일 밤 잠을 자지않고 괴물들을 기다려야 해" 이 때 마마이의 현명한 딸 비케시가 나선다. 그녀는 결혼선물로 마마이에게 하얀도끼를 달라고 졸라 결국 그 도끼로 제즈티르나크의 남편이자, 악귀를 죽인다. 제즈티르나크와의 꿈 얘기를 마친 마마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와 아름다운 요정 페리의 만남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선계(仙界)에서 이뤄진다. 한 낮의 꿈 처럼 허망한 백일몽(白日夢) 같은 이야기다. 마마이는 평소 즐겨찾던 쿠바존 언덕에서 요정들이 이끌려 낯선 장소에 도착한다. 그곳에 있던 요정들은 이상하게도 마마이를 보고 "사랑스런 약혼자가 도착했다. 약혼자가 도착했다"고 크게 환대한다. 마마이는 황금의 자에 앉아 요정들이 가져다주는 산해진미로 세월을 보낸다. 노인 마마이는 하루가 다르게 젊어져 무려 스물다섯 살의 젊은이로 느껴질 정도로 강해진다. 어느 날 밤 한 미녀가 마마이를 유르트(가축이나 펠트로 만든 둥근 천막)로 이끈 뒤 "당신은 아침까지 자지

말고 촛불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다. 그러나 피곤에 지친 마마이는 촛불을 응시하다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동이 터오자 눈을 뜬 마마이는 유르트는 물론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단지 이불 한장만이 어젯밤 기억을 일깨울 뿐이었다. 마마이가 이불을 들추자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페리 황제의 딸 무히리야가 남긴 글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정으로, 천사의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다. 마마이에게 촛불을 지켜보되, 자지말라는 당부를 했던 여인이다. 무히리야는 족지에서 제즈티르나크를 죽인 마마이의 용맹에 반해 무려 8년 동안이나 절절하게 그를 기다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의 짝 사랑은 마마이의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탄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 이뤄졌을 때 마마이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당신이 만일 아침까지 깨어서 잠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당신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이불을 남깁니다. 내 사랑의 증표로 이불을 간직해주세요" 결국, 마마이가 사랑의 힘을 시험하기 위한 관문을 넘지 못한 탓에 사랑을 잃은 것이다. 마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젊은 여행객들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자문자답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이것이 꿈인가요?" "그래 이것은 꿈이지요. 바로 이 꿈들이 나를 늙게했지요"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타이 도시에 있는 젠코브 러시아 정교회 성당의 내부.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